

솔루션 상호운용성 인증 지원  
[제목: MS Internet Explore 7.0  
변경기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개SW기술지원센터

## <Revision 정보>

일자	VERSION	변경내역	작성자
2007.02.21	0.1	초기 작성	김상운

## 1. 개요

### 가. 문서의 목적

지난 11월 15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인터넷 익스플로러(Windows Internet Explorer) 7.0 정식 버전을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많은 면에서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6 버전과 다른 동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변화된 IE 7.0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 및 현재 다양한 사이트에서 보고되는 사례들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웹 사이트 제작자들은 이 문서를 통해서 IE 7.0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 이슈에 대해 쉽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가정 및 제한사항

이 문서의 지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 운영 체제: Windows XP SP2, Windows 2003 SP1, Windows Vista
- 윈도우즈 인터넷 익스플로러 7.0
- 모든 예제는 “XHTML 1.0 Transitional” DOCTYPE으로 선언되어 있지만, 본문의 간결함을 위해 일부 생략된 태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윈도우즈 인터넷 익스플로러 7.0

### 가. IE 7.0 의 2가지 버전

IE 7.0 은 기존 Windows XP SP2, Windows 2003 SP1 운영체제 사용자들을 위한 버전과 새로운 운영체제인 Windows Vista 를 위한 버전으로 나뉘어서 배포됩니다. 초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7.0 베타 버전에서는 그 2가지를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름을 쓴 적도 있습니다. (일부 웹 문서에서는 이러한 표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XP 버전: Windows Internet Explorer 7.0
- Vista 버전: Windows Internet Explorer 7.0+

그 이후, 의견 수렴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이름을 확정 지었습니다

- XP 버전: Windows Internet Explorer 7 for Windows XP
- Vista 버전: Windows Internet Explorer 7 in Windows Vista

일반적으로, IE 7.0 자체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Internet Explorer 7”이라고 언급하고, 특별히 Windows Vista와 연계된 기능(예를 들어, “보호 모드”)을 이야기 할 때는 “Internet Explorer 7.0 in Windows Vista” 라고 언급을 합니다.

## 나. IE7.0 의 2가지 배포 방식

### 1) 수동 업데이트

현재(2006년 11월 25일)IE7.0은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상태이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32비트 운영체제용으로만 한글 버전이 공개되었으며, 영문 버전의 경우에는 32비트/64비트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설치 가능한 운영 체제는 Windows XP 의 경우 반드시 “서비스 팩 2”를 설치해야 하고, Windows 2003 의 경우에는 “서비스 팩 1”을 설치해야 합니다.

### 2) 자동 업데이트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IE 7.0 은 “윈도우즈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서도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영문 IE 7.0 은 2006년 10월 19일에 웹 사이트에 공개가 된 후 약 3주 후인 11월 중순부터 “윈도우즈 자동 업데이트”에 올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영문 윈도우즈 운영체제” 사용자들은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IE 7.0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난 11월 15일에 웹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지만, 국내의 다양한 웹 환경으로 인한 호환성 문제점을 감안해서, 자동 업데이트 일정을 내년 2분기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IE 7.0 배포를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다운로드 센터를 통해서 배포되는 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 배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툴킷의 사용만료 제한은 없으며, 일단 이 툴킷을 설치 한 후에 사용자가 IE 7.0으로 업데이트 하길 원한다면, 이 툴킷을 다시 삭제해서 자동 업데이트를 받거나 또는 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Windows XP 의 경우 서비스 팩 1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 3. IE 7.0 의 변화

기존 IE 6 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탐색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지만, IE 7.0 은 설계 자체를 “탐색기”로부터 분리시켜서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IE 7.0 에 대한 프로그램 삭제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IE 6 으로부터 제품명만을 이어받은 완전히 새로운 웹 브라우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 강화 및 전체적인 동작방식 등이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 가. 전체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경

무엇보다도, 기존 IE 6 버전과 비교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다중 탭 브라우징, 자주 쓰는 메뉴를 위주로 한 툴바 위치 변경, 피싱 사이트 방문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대화창 배치 변경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화는, 직접적으로 웹 사이트의 소스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IE 4 ~ IE 6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 익숙해져 있던 사용자들에게는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나. 웹 표준의 수용

IE 7.0 에서는 표준 모드(Strict Mode)에 대해 IE 6 과 비교해서 HTML 4.01, CSS 2.1 과 같은 웹 표준 사양 준수를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IE 6까지의 HTML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기본 방식은,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유연 모드(Quirks Mode) 또는 호환 모드(Transitional Mode)”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IE 7.0 의 표준 모드 개선과 함께, 여러분의 웹 사이트에 포함된 웹 페이지를 이 표준모드에 맞게 작성을 하면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화면” 렌더링을 볼 수 있는 “교차 브라우저(Cross Browser)”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즉, 특정 웹 브라우저에 종속적이지 않은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기존 사이트에서 이러한 표준을 수용하려면 대부분의 사이트가 많은 부분의 웹 페이지를 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중인 사이트에 대해 이러한 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주제입니다.

## 다. 보다 강화된 보안 적용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 자체로 훌륭한 웹 브라우징 도구였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용자 컴퓨터를 익명의 사용자들이 넘치는 웹 환경과 이어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온 도구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포함된 기능을 다양한 제품에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의 보안 결함은 그러한 제품 군들로의 보안 결함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윈도우즈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설치한 많은 수의 패치들 중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결함 패치가 한몫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IE 6 이 나온 이후, 웹은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을 일상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위협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방화벽을 설치한다거나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피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컴퓨터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근래의 보안 위협은 그 수준을 뛰어 넘어 “피싱(Phishing)”,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XSS: Cross Site Scripting)” 과 같은 것으로 발전하여 방화벽 조차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보안 위협들을 막기 위해 IE 7.0 은 여러 가지 보안 관련 기능들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안전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기존에 IE 6 에서의 느슨하게 적용되던 보안 사항으로 가능했던 웹 사이트 저작자들의 확장 기능들은 동작이 불편해 지거나 또는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속 통신망의 인프라 및 사용자들의 편이를 위해 최대한 다양한 웹 저작을 해온 국내의 웹 사이트 환경에서 좀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라. DHTML.OCX 배포 방법 변경

IE 6 에서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COM(Component Object Model)구성요소들 중에서 “인터

넷 환경에 안전한” 구성요소들은 사용자의 간섭 없이 스크립트 또는 OBJECT/EMBED 태그를 통해서 생성/사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COM 구성 요소는 인터넷 환경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별한 레지스트리 등록 또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면 이러한 제약이 풀리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에 설치한 대부분의 COM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보여지는 웹 페이지에 삽입된 스크립트 또는 OBJECT/EMBED 요소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함께 설치되는 구성요소 중에서 “DHTML.DOCX”에 포함된 DHTML 편집기 컨트롤만큼은 웹 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구성 요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려로 인해 다양한 사이트들이 “DHTML.DOCX” 구성요소를 사용해서 “웹 에디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했고, 웹 메일 및 게시판의 글쓰기 등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에게는 최적의 보안 위협 도구로 사용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거의 모든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DHTML.DOCX 를 이용한 보안 위협 기법은 곧 대다수 사용자들의 보안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DHTML.DOCX 를 이용한 보안 위협을 경험해 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제한해 왔는데, 이번 인터넷 익스플로러 7.0 에 와서는 아예 DHTML.DOCX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로 인해 DHTML.DOCX 를 이용하던 기존 웹 사이트들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4. 결론(VS. Linux)

IE 7.0의 변화로 인해 기존 사이트들이 IE7.0에 호환되기 위해 사이트들을 변경해야 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리눅스 클라이언트 지원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이트 개발자들은 변화된 IE 7.0에 맞추어 개발하더라도 리눅스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